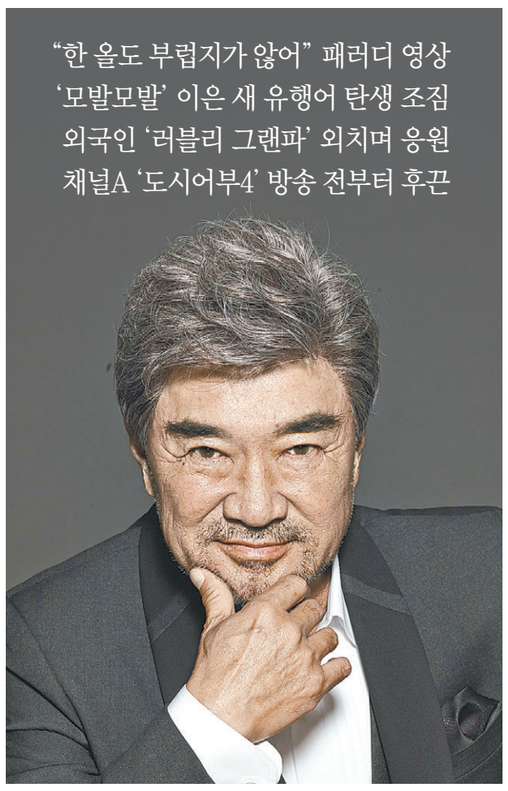
드라마·예능에 유튜브·광고 영상까지 히트다 히트!

고희에 찾아온 '이덕화 전성시대'

〈70세〉

"인생은 지금부터!" 배우 이덕화(70)가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고 있다. 1970~80년대 거칠고 터프한 이미지의 청춘스타로 사랑받았던 그가 최근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푸근한 매력을 드러내며 젊은 시청자 시선까지 사로잡았다. 특히 최근 모델로 활동 중인 한 브랜드의 광고 영상으로 유튜브상에서 화제를 새롭게 모으고 있다.

"한 올도 부럽지가 않어" 패러디 영상
'모발모발' 이은 새 유행어 탄생 조짐
외국인 '러블리 그랜파' 외치며 응원
채널A '도시어부4' 방송 전부터 후끈



배우 이덕화가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친근한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제공 | 디에이와이엔터테인먼트

●새로운 트렌드의 주역으로

이덕화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 가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해왔다. 최근 관련 홍보 영상으로 젊은 누리꾼들의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영상에서 그는 비트에 맞춰 "난 괜찮아, 한 '올'도 부럽지가 않어"라며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장기하의 노래 '부럽지가 않어'를 패러디해 웃음을 자아낸다. 1분 30초 분량의 '쇼츠'(짧은 영상)는 유튜브에서만 무려 150만 뷰를 넘겼고, 각종 SNS에는 이를 다시 패러디한 '짤'(사진)도 나돈다. 4만여 이용자가 해당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며 "'모발모발'에 이은 새 유행어가 탄생할 조짐"이라며 호응하고 있다.

앞서 그는 올해 1월과 4월 방송한 MBC '웃소매 붉은 끝동'(웃소매), SBS '사내맞선'에서 각각 주인공인 준호와 안효섭의 할아버지로 등장해 재미를 안겼다. 1972년 TBC(동양방송)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청춘의 아이콘'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가 긴 시간 꾸준히 활약해온 성과이기도 하다.

●해외 팬들도 "러블리 그랜파"

기세는 해외로도 이어지고 있다. '웃소매'와 '사내맞선'이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면서 최근 해외 팬도 늘려가고 있다. 그의 SNS에는 "Lovely grandpa(사랑스러운 할아버지)" 등 영어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일부 팬들은 "haraboeji(할아버지)"라 부르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활약은 계속된다. 7월 채널A 예능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도시어부) 시즌4로 시청자를 만난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촬영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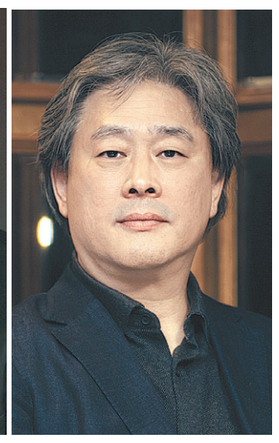
이에 힘입어 8분짜리 프리퀄 영상이 유튜브 공개 하루 만인 23일 20만 뷰를 얻으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올랐다. "덕화 형님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낚시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긴 300여개의 댓글도 달렸다.

9월에는 SBS 새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 출연한다.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 역으로, 손녀인 검사시보 김지은과 변호사 남궁민의 조력자로 활약한다. 그에 대해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노년 캐릭터가 비중 있게 등장하는 적지 않은 드라마 출연 제안을 받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봉준호·박찬욱 감독, 다시 할리우드로!

봉준호 감독, 워너브라더스와 '미키7' 촬영 준비
박찬욱 감독은 HBO 7부작 드라마 '동조자' 연출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이 다시 할리우드로 날아간다. 나란히 미국 소설을 원작으로 한 미국영화와 드라마를 현지에서 연출한다.

봉준호 감독은 8월 영국 런던에서 촬영을 시작하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인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미키7' 연출에 나선다. 봉 감독은 이미 현지에서 한창 촬영 준비 중이다. 미지의 얼음 세상을 개척하는 복제인간의 이야기를 SF장르에 담아낼 예정이다.

특히 '트와일라잇' 시리즈와 '더 배트맨'의 로버트 패티슨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과 호흡을 맞춘다. '어벤져스' 시리즈의 '헐크'로 잘 알려진 마크 러팔로와 '옥자'·'설국열차'로 봉 감독과 작업한 틸다 스윈튼도 합세한다.

영화는 미국 에드워드 애시튼 작가가 하반기 출간하는 소설을 원작 삼는다. 작가에게서 직접 소설 원고를 받아 읽은 봉 감독은 이에 매료돼 곧바로 각색에 나섰다. 애시턴 작가는 과학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을 새롭게 영화로 제작할 봉 감독에 대해 "천재다. 단 한 번도 나쁜 영화를 만든 적이 없다. 환상적인 영화를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며 신뢰감을 드러냈다.

29일 개봉하는 '헤어질 결심'으로 올해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은 조만간 미국으로 날아가 HBO 7부작 드라마 '동조자' 제작을 준비한다. 드라마를 총괄하며 일부 에피소드를 연출한다. 2018년 BBC '리틀 드러머 걸' 이후 그의 두 번째 드라마다.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현지 최고 출연료인 회당 200만 달러(약 26억 원)를 받고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는 2016년 퓰리처상을 비롯해 애드거상, 앤드루 카네기 메달 소설상, 아시아 퍼시픽 아메리칸 문학상 등을 받은 베트남계 미국 작가 티엣 타인 응우옌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베트남전 이후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중첩자의 시선으로 현실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꼬집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응우옌 작가는 "박 감독의 '올드보이'가 소설에 큰 영향을 줬다. '동조자' 영상화에 박 감독보다 더 나은 이는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클레오 출신 채은정, 13년 만에 솔로앨범 '위후후후' 발매
"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걸그룹 클레오 출신 가수 채은정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새 미니앨범 '위후후후'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99년 3인조 클레오의 멤버로 데뷔한 채은정은 13년 만에 솔로 앨범을 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쏟아지는 스핀오프 예능…"겹치기 출연 피로" vs "팬덤 강화"

SBS '골때녀' 외전 '골 때리는 외박' 선보여
엠넷은 '스우파' 활용 '뚝딱이의 역습' 방영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이 스핀오프(외전)를 통해 '브랜드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 사이에서는 신선함의 부재, 무분별한 소재 확장 등을 지적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기도 해 향후 흐름이 주목된다.

SBS '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제작진은 최근 외전인 '골 때리는 외박'을 선보이고 있다. 여성 연예인들의 축구 경쟁을 그려온 '골때녀'의 출연진인 모델팀 'FC 구척장신', 아나운서팀 'FC 아나콘다' 등 멤버들의 여행 과정을 담는다. 이어 올해 여름에는 소개팅 소재를 접목하는 '골때리는 그녀들-연애하다'(가제)도 방영한다. 이미 22일 베트남 다낭으로 촬영을 떠났다.

엠넷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를 활용한 예능프로그램 '뚝딱이의 역습'을 방영 중이다. 모니카, 허니제이, 가비 등 '스우파'의 댄스팀 리더들이 '몸치'들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또 다른 방송사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제작진도 엇비슷한 방식의 제작에 최근 착수했다. 제작진이나 출연자들은 "새 프로그램보다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연예인들도 이미 친해진 동료들과 함께 출연할 수 있어 섭외를 반긴다"고 밝혔다.

형식의 속성상 일부 연예인들의 '겹치기 출연'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지나치다"며 피로감을 드러낸다. 각 프로그램 실시간 댓글창에는 "신선한 재미를 얻기 힘들다"는 내용의 부정적인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실제로 '골 때리는 외박'은 2%대(닐슨코리아) 시청률에 머물고 있고, '뚝딱이의 역습'도 별다른 화제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아직 제작 중인 '골때녀'의 소개팅 외전에 대해서도 "기존 프로그램과 동떨어진 기획 아니냐"는 시각을 보내고 있기까지 하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5

'탑건2' 첫날 18만8000여 관객…박스오피스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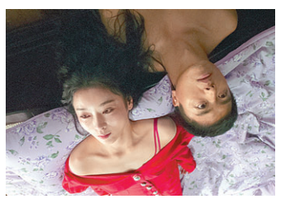
'탑건2' 톰 크루즈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주연한 블록버스터 영화 '탑건: 매버릭'(탑건2)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23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탑건2'는 개봉일인 전날 관객 18만8000여 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15일부터 일주일간 1위 자리에 올랐던 '마녀2'는 2위로 밀려났다. '탑건2'는 1986년 '탑건'의 후속작으로 개봉 전부터 많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모았다. 전설의 전투기 조종사인 매버릭(톰 크루즈)이 미국 해군 전투기 조종사 훈련학교 교관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이효리·이찬혁 듀엣곡 '프리 스마일' 오늘 공개

가수 이효리와 악뮤 이찬혁이 컬래버레이션 곡을 내놓는다. 23일 티빙에 따르면 이들은 새 프로젝트 신곡 '프리 스마일'(FREE SMILE)을 24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이찬혁이 프로듀싱한 노래는 이효리가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서울체크인'을 촬영하며 느낀 솔직한 심정을 담았다. '서울체크인'은 음악 작업에 갈증을 느낀 이효리가 이찬혁에게 협업을 요청해 곡을 완성하는 과정을 그렸다.

웨이브, 영화 '인민을 위해…' 드라마 제작 선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가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등을 드라마로 제작해 선보인다. 23일 웨이브에 따르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9부작 드라마로 각색돼 이날부터 매주 목요일 2회차씩 공개된다. 영화는 사단장 사택 취사병(연우진)과 사단장 아내(지안)의 금지된 사랑과 갈등을 그린 로맨스다. 평범한 회사원(최귀화)이 지구 종말을 앞두고 5명의 여자와 엮이는 블랙코미디 영화 '부기나이트'는 6부작으로 제작돼 30일부터 선보인다. 조선시대 기생 어우동의 이야기를 그리는 '어우동: 주인없는 꽃'도 내달 중 공개한다.

음주운전 김새론, '키스 식스 센스' 편집 없이 등장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키스 식스 센스'에 편집 없이 등장했다. 김새론은 21일 공개된 9회에서 주인공 김지석이 연출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특별출연했다. 이에 대해 23일 디즈니+는 "'키스 식스 센스'는 사전제작한 드라마로, 모든 제작과 편집이 (음주운전)사건 이전에 완료됐다"면서 "남은 2회에는 김새론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은 없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세븐틴, 11월부터 데뷔 첫 일본 돔 투어

13인조 그룹 세븐틴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일본 돔 투어에 나선다. 23일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븐틴은 11월 일본 오사카를 시작으로 도쿄, 아이치 등 세 곳에서 월드투어 '비 더 선-저팬'(BE THE SUN-JAPAN) 콘서트를 연다. 쿄세라 돔 오사카, 도쿄 돔, 반테린 돔 나고야 등 돔 공연장에서 각 도시당 2회씩 6회 공연을 진행한다. 해당 돔 투어는 25·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시작하는 월드투어의 연장선이다. 이들은 미국 시애틀, 캐나다 토론토 등 20개 도시에서도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